



신 영 단
(인천송의국교 양호교사)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여러분들께 “간호원이기 때문에 해낸 일들” “짧은 간호원이 해주어야만 하는 일” 또한 “순수함과 열의를 필요로 하고 있는 일”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기 전에 우선 제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저는 현재 항구도시인 인천에 자리하고 있는 인천송의 국민학교 양호교사입니다. 학생수 4,000여명이 넘는 대가족이고 하루에도 양호실을 찾는 아동이 60~70명을 헤아리는 커다란 학교입니다. 이 대식구의 건강관리, 질병의 예방 상치의 치료등으로 바쁘고 조금은 힘든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고개를 돌리어 한가로이 다른 생각들을 할 여유조차 없도록 아이들과 같이하는 양호실의 바쁜 시간에서도 문득문득 섬뚫 하도록 강렬하게 제 가슴을 두드리고 지나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지나간 일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진실로 순수했고 보람으로 이어져간 순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불과 3개월전만해도 저는 전주민 400여명도 못되는 아주 자그마한 섬에서 즐겁고 행복하다는 생각만으로 충분히 기쁜 양호선생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육지처럼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

서의 업무만이 아니라 전교생과 교직원은 물론이며 섬에 살고 있는 전주민들에게 유일한 의료인으로서의 기능을 했었습니다. 또한 위급시에는 짐승들에게조차 편안함을 줄 수 있는 단 하나의 존재로 뛰었습니다.

점계 그늘린 아이들과 덩쿨며 정을 나누었고 400여명 섬사람들의 회노 애락을 같이하는 생활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지 않은채 조그만 낙도에서 살아가는 이들, 문화의 혜택도 바로 최근이나 조금씩 알게 되어가는, 그래서 유행이라던가 멋있다는 표현 같은건 차라리 잊혀진 단어처럼 서먹해 하는 순박한 사람들입니다. 불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이어지는 대상에게는 단지 무관심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에 묵묵히 충실한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얼마만큼은 육지의 이들과는 때묻지않은 순수함도 있고, 아직은 이웃의 일들을 내것처럼 함께 해주는 따뜻함도 있는 곳입니다. 정기적으로 1일 1회 운항되는 정기 여객선이 유일한 낙도인들의 교통수단, 문물교류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때때로 태풍이나 몰아치면 끝없이 오랫동안 햇님만 기다리며 고립된 채 지내야하는 답답하고 안쓰러운 교통불편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여객선을 타고 바닷길 따라 세시간, 다시 또 통통거리는 작은 나룻배로 40여분, 그곳에 바로 제가 안내하고

자 하는 섬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행정적 지명은 경기도 용진군 덕적면 승봉리, 섬을 일주하는데 걸어서 두시간 반이면 충분한, 인구 400여명의 자그마한 외곽 섬입니다. 계절은 어느 곳보다도 민감하게 느낄 수 있게 일찍 찾아와 주고 여름이 익어가는 이맘때 쭤이면 보리밭은 황금색으로 풍성히 물결치고 있을 것입니다.

선착장 돌길을 더듬어 고갯길에 올라서면 고갯턱을 넘어서 바로 한눈에 마을이 펼쳐져 보입니다. 동그랗게 모여있는 마을의 전경은 마치도 풍경화 한폭 마냥 정겨워 보이고 지붕도, 울타리도 좁게 새단장한 모습이 보입니다. 이 머나먼



나도에도 새마을 운동의 뜨거운 열기가 실려와 있었으니까요. 끈질긴 노력은 좋은 열매를 맺음을 실증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처음 섬에 왔을 때 이곳저곳 초가지붕이 많이 눈에 띄었고, 마을 안길은 고르지 못한 돌로 엉망이어서 낯선 제 구두발을 애먹이기도 하였지만 불과 2년 사이에 모든 마을의 구석구석이 새롭고, 홀륭하게 변모된 것이었습니다. 하기가 변한 것이 어디 마을의 모습뿐 이겠습니까? 섬에 첫발을 디딘 그날의 그 강렬했던 느낌은 오랜 시간이 지나간 지금에도 너무나 생생하게 제 기억속에 있습니다. 섬 국민학교의 양호교사! 발령장을 받은 제 손끝은 떨렸고 심장은 가벼운 흥분감으로 인해 무섭도록 뛰었습니다.

간호 대학을 졸업한 뒤 곧 바로 뛰어들었던 곳, 보건 간호 사업으로 3년 가깝도록 많은 사람을 만나고 적지않은 양의 사업실적을 달성해 냈

으나, 가족계획을 담당한 관계로 어린 새싹들과의 만남은 뜻

밖의 사실로 제 앞에 닥쳐 왔었기에, 일종의 호기심과 일종의 두려움이 같이 뒤섞인 그런 두근거림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곱고 밝은 모습, 웃음이 가득한 순진해 보일 섬 꼬마들이제부터 내가 그 아이들과 같이 생활하게 되는구나! 하는 많은 생각들이 앞섰고, 뒤를 이어 내자신을, 내 젊음을, 내가 가진 지식을 한번 멋지게 그들에게 맡기고 받쳐보겠다는 강한 욕망과 패기가 부풀어 올랐습니다.

하얀 가운데 검은 선도 선명한 캡을 받아쓰던 졸업식날이 되살아 났습니다. 간호원이 가져야 하는 자세, 간호원이 지켜야 할 맹세, 차라리 신성한 제전에 엄수해 나가야 할 율법을 제시받는 것과도 같던 그날, 교수님의 말씀도 분명하고 새삼스럽게 떠올랐습니다. “이 세상 천지간 모든 것에 다 실수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고귀한 생명체인 인간을 대하고 책임져 나가야 하는 여러분 앞날에는 단 한치의 실수도 없어야만 한다” 하시던 말씀이 말입니다. 다른 말을 더 붙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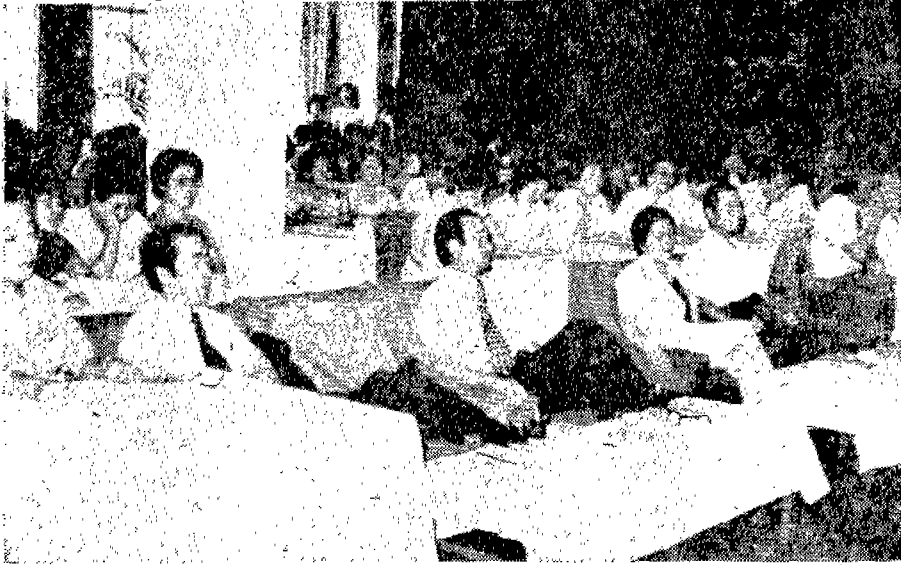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간호원의 임무가 얼마나 막중하고 큰가를 이 한마디로 충분히 짐작하고 실감케 되었으니까요.

정확히 말한다면 꼭 두해 전으로 거슬러 올라 갑니다. 1977년 8월 초, 무섭도록 더운 날이 계속되었고 그 무더위 속에서 땀길에 올랐습니다. “당연히 두근거리야 할” “당연히 긴장되어야 하는 가슴” 그런 때문이었는지, 여행한다는 설레임은 추호도 없이 땀길 서너시간을 꿈처럼 지나쳐 섬에 갔습니다.

첫발 디딘 해변가는 은빛 곱다란 모랫벌이었고 단지 조용하다는 느낌뿐 낯선 저를 마중해주는 이는 유감스럽게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 줄기 서운한 마음도 있었지만 불편스러운 들길, 고갯길을 돌아 학교를 찾아 가기로 했습니다. 때마침 학교에서는 수업을 끝낸 꼬마 어린이들

“이 세상 천지간 모든 것에 다 실수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고귀한 인명을 대하는 여러분은 단 한치의 실수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삼삼오오 짝을 지은채 마을로 나오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꼬마는 누런 코를 흘리는 채였고 또 어떤 꼬마는 온통 머리가 엉크러진 채로 다만 저에 대한 호기심과 낯설은 시선을 보내기만 했습니다. 적의는 아니었을지라도 분명히 그 검은 눈동자들 속에는 타인을 의식하는 강한 저항의 빛이 보였고 그러한 점이 일순간 저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조금 망설여도 졌지만 저는 용기를 내어 그 꼬마들 속으로 들어섰습니다. 낯선 제 행동에 움칠 물러설듯한 꼬마들을 우선은 안심시켜야 했습니다. 상냥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잘 덤구나. 그렇지!” 하며 첫인사를 건네고 손가방을 열어 머리빛과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코를 닦아주고 땀에 뒤엉킨 먼지투성이 머리를 조심스레 손질해 주었습니다. 땀내와 비릿한 살내음이 역겹지도, 싫지도 않았습다. 겁먹은 듯한 눈초리들, 콧마루가 쩍 뻐졌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들 친구야. 육지에서 온 선물이란 말이야, 너희들을 이 모양대로 놓아 두지



끌어 찢겨주는 엄마
아빠는 없었습니다.
무릎이 깨어지고 코
피가 흘러도 유심히
보아 닦아주고 약을
발라주는 부모님도
없었습니다. 학교가
끝난 길, 가쁜, 뉘
노는 그 애들이, 어
쩐지 몹시 외롭게
보이기까지 했습니
다. 따스한 들불이
그리운 아이들, 자
연히 옷차림도 머리
도 엉클어지는 것이

않을께. 늘 너희들 얼굴에 환한 웃음이 끊이지
않도록 따뜻하게 해주마” 저는 몇번이고 되뇌어
다짐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이미 저는 설에 숨겨져 있던 자
그만 나의 꽃들과 만난 것입니다. 실상 상상만
으로 그려왔던 그 어떤 것이 크게 소리내며 휘
바람을 느껴했습니다. 내가 해내야 할 일이 무척
이나 힘이 들 것 같다는 새로운 각오도 이순간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부추켜 주었습니다. 때 투
성이 일괄, 환한 웃음이 아닌 냉정한 눈빛이 제
눈 앞에서 어른 거렸습니다. 험사리 정이 들 것
같지 않다는 걱정,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허나
저 때투성이 어두운 얼굴들을 열심히 갈고 닦아
곱고 빛나는 보석으로 보이게 하리라! 체나름
의 결심을 했습니다. 언니도 되어주고 누나도
되어주고 따뜻한 사랑을 듬뿍 보여 주리라! 하고
말입니다.

농사일에 매달려 살다시피 하는 농촌의 부모
들은 아이들을 돌보고 다정히 얘기나마 나눌 한
치의 시간도 없는 듯 했습니다.

부모들은 여러명되는 아이들이 사랑스럽기 보
다는 오히려 귀찮다는 투였고 많은 것에 굶주리
는 아이들은 늘 들판과 산을 쪼다니며 뛰었습니
다. 흙강아지가 되어 집에 돌아가도 그 손을 이

지오. 아들은 제가 해나가야 할 일이 무진장으
로 저를 기다렸습니다. 어느 한녀석 코가 흘러
도, 무릎이 깨져도 이젠 제가 들춰야 했으니까
요.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서히 꼬마들과
익숙기 위한 노력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실 심
탄의 특징인지 지독할 만큼의 고집과 거리감 강
한 배타심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출근 첫날부터 시작했던 벌소소득, 마을 하수
구 소득, 공동 간이상수도 수원지 소득이 걸름
없이 계속되었고 며칠 지난뒤부터는 제 스스로
일을 찾고 만들어 그것을 해나가기 시작 했습니
다. 첫날 학교에서 저는 손톱깎기 한 개를 들고
교실 여섯반을 차례로 찾아 들어갔습니다. 한학
년이 한 교실에 모두 모여 공부했고 그때야 겨
우 10여명 안팎, 가족적인 분위기의 온화한 수
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80여명이 아닌 10여명을 상대로 부
담없는 자상한 수업을 이끌어 나가셨고 아이들
은 한사람씩 이루어지는 개별적 문답 지도에 많
은 도움이 되는듯 했습니다. 옥지의 콩나물 교
실! 그런 뻑뻑한 모습을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그곳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고 다른 나라의 일
처럼 멀게만 생각되었습니다. 한명씩 한명씩 손
을 씻기고 손톱을 정성스레 깎아 주었습니다.
아이들과의 직접적인 이 만남은 우리를 급속도

로 가깝게 하는 데 커다란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한주일 가량이 지나자 한명 두명 때로는 때를 지어 아이들은 방과후 제 자취방으로 모여들기 시작했고 저는 저녁시간에 아이들을 통해 새로운 시도를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이들을 통해 각 가정의 병력과 현재의 질환 분포등을 대강이나마 파악해 낼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길 안내를 부탁하자 아이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앞서 주었고 회중전등 한개의 빛으로 드디어, 어두움을 밝히려는 사명의 길이 시작된 것입니다.

저녁때마다 일정한 시간에 이어지는 가정방문은 많은 것을 알아내는 좋은 계기가 되었고 무의촌 지역에서의 양호교사의 역할을 주민들에게 자연스럽게 알려 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살펴보면 우리 주변에 흔히 숨겨져 있는 일, 접나는 일이 많습니다. 아주 사소한 병을 숨기고 또는 애타우다가 끝기야는 견장을 수 없는 상태의 큰 병으로 키우는 일들 말입니다. 그곳 섬에도 그런 경우의 몇몇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네들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들은 노골적인 적대감정과 비웃음을 보였고 제가 거기에 아랑곳 하지않자 나중에는 사납고 무서운 개를 풀어놓아 가정방문 때마다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만두지 않았고 저녁시간의 가정방문을 계속했습니다. 몇몇환자중 한 중년남자분이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장마른 몸매에 몹시 창백했고 늘 잔기침과 식은 땀이 뺀지지 않았습니다. 몇주일 관심있게 지켜본 결과 저는 그 환자가 전염성 질환인 폐결핵 활동성균을 가진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래침을 아무곳에나 마구 뱉아내는 모습을 보면서도 함부로 말을 건네지는 못했습니다. 결코 직선적이 아닌 대화의 자연스러운 실마리를 찾기 위해 그 환자의 주위를 맴돌았을니다.

어느날 저녁엔 지나는 길에 들린듯 하면서 아기를 업어주기도 했고 어느 휴일 날은 온종일 쪼그린 채 해변가에 앉아 글을 써서는 그 환자를 위해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시간의 흐름은 정말 명약인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유난스럽게 저의 방편을 피하려던 그 결핵환자도 차츰 시간이 지나자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부드러워져갔고 음성이 누그러져 갔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알고있는 작은 지식을 그분께 옮기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몇개 준비되었던 결핵사업용 홍보책자를 중심으로 투병의 의지를 심기위한 유혹을 계속했고 끈질긴 고집은 점차적인 호기심으로 튀바뀌어 갔습니다. 권유하기 한달남짓! 러나 상상외로 그분은 잘 통할수 있는 마음을 가졌고 옥지행 점진의 길에 순순히 올라주셨습니다. 수일후 귀가하는 그분 손에는 결핵퇴치를 위한 약꾸러미가 들리워져 있었지요. 얼마나 흐뭇하고 다행스러웠는지요. 세상의를 다해 환자를 민보전지소에 등록케하고 규칙적인 투약과 주사를 도왔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아픔을 덜어주교자 라는 사이에 또 다른 곳에는 제가 해야 할 일들이 저를 기다리곤 했습니다. 지저분한 꼬마의 배를 닦아 주어야 했고 머리를 감기고 손질하기도 해야 했습니다.

헤르는 버건 옷을 제때기도 했구요. 처음 아이들의 머리를 깎이던 일들이 지금도 기억속에 생생합니다.

생전 처음 헤르는 낯선 일이기도 했지만 왜 그렇게 손끝이 떨리던지... 자꾸만 머리는 빠물거렸고 깎을수록 그만큼 머리는 차꾸 짧아지고... 정말 진땀이 나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허나 그런 일이 여러번 되풀이 되어나자 그때에는 눈을 감고서라도 썩 잘 깎아낼단치 숨쉴수는 이발사이기도 했습니다. 한꺼번에 10여명 동리 꼬마들 머리를 깎은 날은 손가락 살이 터져 피가 흐르기도 했었고 팔이 아프도록 머리들을 감겨준 다음 날에는 손가락조차도 움직이지 못 하는 통증이 오기도 했었지만, 조금씩 눈에 띄게 깨끗해지고 귀엽게 변모되어가는 아이들을 지켜볼 때 저의 기쁨은 감탄과 환호성으로 들끓어냈습니다. 지나고 나서 생각해 되는일, 어디 한두 가지 임니까만은, 그중에서도 가장 난감했던 경우 몇을 이제 말씀 드릴까 합니다.

시간은 그런 가운데에도 자꾸 지나 벌써 3개월이라는 기간이 지났고 어느정도 생활이 안정되어 갈 즈음 체계는 처음으로 자진해서 찾아오신 환자가 생겼습니다.

그분은 40대 가량 보이는 아주머니였습니다. 그 아주머니께서는 “어디가 불편 하신가보군요” 하고 상냥한 어조로 말을 건네는 저를 그냥 힐끔 바라보시더니 불쑥 “마이신 있으면 나 좀 몇개 주어요.” 하셨습니다. 저는 일순간 어리둥절했지만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동안 참으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아주머니의 말을 빌리면 동리사람들 거의가 어딘가 몸이 조금 불편하다 하면 마이신을 복용해왔고 또 그래야만 빨리 낫는다고 굳게 믿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해묵은 산삼이 신비한 효험의 약제로 사랑을 받듯이, 이 사람들은 마이신이라는 작은 캡슐을 어느 병이든 만병통치한 능력의 약으로 잘못 믿고 있고 잘못 사용해 왔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소화불량에도, 두통에도 무슨 영양제로나 알 듯 겁없이 항생제를 남용하고 있는 사람들, 어쩌해야 할지 두려움조차 알셨습니다. 머릿속 깊이에 이미 오래전부터 뿌리내리고 있는 ‘꼭 그렇다고 믿는 그네들만의 인식을 하루아침에 움직이지는 못하리라고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찾아오신 바로 그 아주머니가 계몽의 첫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여러 시간에 걸친 설득과 이해가 시작됐습니다.

알아 듣기에 가장 쉬우리라는 제 나름대로의 주석을 같이 붙여가며 약의 오용, 약의 남용에서 오는 무서운 부작용을 설명했고 증세에 따른 올바른 알맞은 투약이 이루어져야 함을 역설했습니다. 참! 딱한 일입니다. 뱃길로 한시간 이상을 가야만 있는 먼 보전지소는 위급시 너무나 멀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낙도민들의 건강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병원

선은 일년에 두어차례 정도 찾아 오는 실정이었으므로 실제적으로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번은 병원선이 다녀간뒤 몇분 동리 노인들과 아주머니가 저를 찾아 왔습니다.

“배가 올 때마다 가서 진찰하고 약 받아 먹는 때 통 듣지몰 았으니 이약이 두언지 좀 봐주어요”하고 말했습니다. 제가 약포지를 전부 펴보니 참 놀랍게도 세분 동리분의 약은 모두가 같았습니다. 아스피린, 건위정, 그리고 약간의 가루약! 세사람이 모두 다른 증세를 갖고 찾아갔는데 투약이 모두 같다니, 놀랄 수 밖에 없었고 불만의 말을 쏟아놓는 할머니 아주머니께 어떤 설명도 해줄 수가 없어 딱했습니다. “먼저도 이런 약 똑같이 주어서 먹지도 았고 버렸다고. 이것도 먹으나 마나야.”하면서 변소속에 던져 넣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문도록 사무실에 앉아 생각하고 또 생각 했습니다. 약만 주고 가 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질병에 따른 알맞은 투약을 한다음 그것을 환자가 정해진 시간에 꼭 먹을 수 있도록 지도하고 권장해 줄 사람이 있었다면 이런 일이 있지는 않았을텐데... 허나 현실은 그렇지 못했고 형식에 얽매인 진료, 투약이 반복되었기에 이런 불신과 부작용이 생겨났음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많은 이유들 때문에 육지에 불 일이 있어 다니고 오는 주민의 경우, 많은 종류의 약품을 일방적으로 구입, 상용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가정에는 일정량의 항생제 주사 약까지도 갖고 있었고 처녀집 중 한집 정도는 주사기도 갖고 있으니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능숙하게 자가주사들도 해왔다니 무서운 일이 아닙니까?

의학적 용어로 표시되는 위경련이라는 증상을 그곳 사람들은 “속앓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식사시간에 대한 또, 식사량에 대한 어떤 고정

약포지를 전부 펴 보니 참 놀랍게도 동네 세분의 약은 모두가 같았습니다. 모두 다른 증세를 갖고 찾아갔는데 투약이 모두 똑 같다니...

...형식에 얽매인 진료, 투약이...

관념이 희박하여 거의 모든 어른들에게 이 속앓이가 자주 일어나는 실정이었다고 속앓이가 나서 통증이 심해지면 진통제를 다량 마구 주사하곤 했었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웬만한 진통제는 통효과가 없었고 주사약의 투약 정량도 놀랄만큼 그 양이 증가해 있었습니다.

한사람에게 주사하고 있는 1회의 진통제 주사량이 50~60cc를 육박한다면 여러분은 이말을 믿으실 수 있었습니까? 허나 그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 가까이에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십번씩이나 이런 난감한 경우에 부딪혀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때마다 되풀이 되는 설득을 해야만 했습니다.

처음 몇번은 도대체 무슨 소리냐고 오히려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고 어떤 때는 눈을 크게 뜨고 언성을 높이며 저를 힐책하기도 하셨던 아저씨, 아주머니들, 조금씩 제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준비해 갔던 약간의 구급약품이 뜻대로 잘 받아들여졌고 증세에 따른 알맞은 투약은 거짓말처럼 몇번이나 아픔이 사라지고 편안케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주민들의 태도가 변했던 것입니다. 양호선생이라는 명칭앞에 어느날 부터인가 “우리”라는 정겹고 빛나는 글자 두 개가 늘어났습니다. 이제 타인을 보는 듯 냉냉하던 눈빛이 점차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낯선 육지사람이 아닌 한가족의 울타리에 저도 들어선 것입니다. 일이 차츰 쉬워지는 것입니다. 효과도 크고 일하고 나면 그만큼 눈에 띄게 흔적이 남아 용기가 생기곤 했습니다. 단순한 아픔의 호소나 상처의 치료만이 아니라 모자보건, 가족계획 상담 및 시술안내, 어린아기의 예방접종에서 가정보건 문제에까지 제 도움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저는 이 낙도에서의 가장 필요한 존재라는 자의식에 눈떴고 스스로의 임무, 그 막중함을 더부름 느꼈습니다. 늘 피땀이며 땀이었습니다. “좀 더 잘 대해주자, 좀더 편안히 해주자, 좀더 경성껏 친절하자”하고 갑니다. 그러나 마음과 같이 잘 해줬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열심히 했다고나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요.

폭넓은 상담 문제를 가지고 제게 올 때마다 느끼곤 했습니다. 비로서 양호교사를 인식하고 있고 제 스스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것! 그런 일종의 감격스러움이기도 했습니다. 인정받는다는 것, 바로 커다란 힘입니다. 뛰기 시작했다고나 할까요. 처음에는 조심스레 한발씩씩 걸음 걸었고 나중에는 비로서 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힘을 다해……

급속도로 가까워지기 시작한 부녀자들을 위하여 정기적인 부녀회 소집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저조하던 절미운동도 새롭게 그 가치설명에 열기가 일더니 실적이 오르기 시작했고 부녀회 때마다 보건계몽, 보건교육 및 가족계획 상담, 영양식을 위한 간단한 요리강습까지 가졌습니다. 효과가 컸습니다. 한달에 한번씩도 잘 모여지지 않던 부녀회가 한달에 두번씩 전회원 출석의 좋은 출석율을 보였고 한줌씩 모여던 절미가 몇개월 지나자 모임때마다 각자 절미통을 자발적으로 마련하고 한끼 식사준비때마다 한용쿰씩 따로이 모으게 되었습니다.

한알의 밀알이 그대로 있으면 밀알로 밖에는 존재할 수 없지만 그것이 썩으면 장차 수만 알의 밀알이 싹틀 수 있는 좋은 밑거름이 될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단지 농사짓고 거기서 거두는 것으로 굶지않으면 된다는 단순한 생각을 가졌던 부녀자들은 차츰 절미 한줌으로 시작하며 부녀회모임을 통한 단결과 협동의 마을가짐을 알게 되어 갔고 새마을 사업에 너도 나도 앞장서는 열의 넘치는 회원들로 변해갔습니다. 절미로 마련된 부녀회의 기금, 아직은 걸음마를 시작하는 어린애처럼 단단하고 굳지 못하지만, 차츰 크게 불어날 것이고 그것이 밑바탕되어 부족하고 어렵던 낙도민들의 생활도 점점 부유해지고 살기 좋아지리라 생각하고 믿습니다.

가까이에서 흥미있는 대화를 통해 이끌어주는 이가 없었던 그네들에게 친절한 대화는 관심을 충분히 유발케했고, 1문 1답 형식의 토론도 꽤나 진지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 정기적인 모임을 위해 저는 여러해 전의 경험을 뒷받침 삼아

먼지 앉은 전문 서적을 다시 펼쳤습니다.

보건소 생활 2년반, 그동안의 많았던 교육과 현지 출장 경험 루프시술 경험이 그때처럼 결실하고 크게 도움이 되었던 적은 아직껏 없었습니다. 어떤 아주머니는 무슨 아가씨가 그런 일들을 상세히 다 알고 있느냐고 신기해 하셨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민에 대한 보건 계몽도 차츰 손쉬워졌고 주사를 손수 놓던 많은 이들도 나중에는 모두 주사기와 약을 들고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를로서는 커다란 결심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그러기까지는 저를 격려 해주시고 주된 지도에 앞장서 주셨던 이장님, 교장 선생님 그외 선생님들 힘이 컸이나 컸습니다.

몸이 불편해지고 아파오는 일은 늘 갑작스러운 일이고 계게 도움을 청해오는 일이 이런 때였으므로 진료시간이 따로이 정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24시간 늘 신경을 써야했고 대기상태였습니다. 특히나 밤깊은 시간 피곤함에 끈히 잠들어 있는 때문을 두드러매는 때는 귀찮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심한 저녁에는 여러차례 이런 일이 반복되었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날이 밝기도 했습니다.

처음 섬에서 지내던 몇개월은 견디기 어렵도록 잠이 부족했지만 숙달된 오래뒤부터는 낙엽 소리나 부스럭거리는 바람소리에도 번쩍 눈을 뜨고 회중전등을 더듬어 찾아들 만치 예민해졌고 기다리는 상태로 되었습니다.

그날도 역시 저들어 가는 시간 “오늘 저녁엔 크게 아픈사람 없이 지내게 해주십시오”하고 탁 잠자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왈각 제 방문을 열어 젖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 들어 보았더니 거기에에는 안색이 창백한 채 말도 제대로 못하는 어느 아저씨가 계셨습니다. 저는 급방 사태가 뭘지도 급한 것을 알아줄 수

있었고 서둘러 가운데로 잘아입고 그 아저씨를 따라 논둑길을 뛰었습니다. 긴장으로 떨리는 마음을 가다듬으며 내문을 밀치고 들어가자 많은 사람들 틈으로 놀라운 광경이 엿보였습니다.

간호학생 시절, 병원실습을 통해 몇번인가 약

아무런 준비도 않된 상태에서의 위세척 !

방앗간의 기름주입용 고무튜브가 유일한 튜브였다...

물중독 환자를 가까이에서 간호해 본 기억은 있었으나 이제 막상 제가 해주어야만 하는, 처치의 손을 기다리는 이 위급한 상황의 환자앞에서 저는 온몸이 굳어지는 긴장을 느낀 채 순간 내가 간호원으로서 어떤 응급처치를 해야하는지 결단을 내리기 위해 환자의 상태를 관찰해야 한다는 생각이 번갯불처럼 스쳤고, 마로 상태를 살펴보기 시작 했습니다. 환자의 동공은 약간 확대되어 있었고 입과 코로부터 거품과 함께 역한 냄새의 것이 흘러나와 있었습니다. 무엇을 먹었는지 알아 보려고 아주머니, 아주머니 하고 불러도 혼수상태에 빠지는 듯 이미 혀가 굳어져 말을 나누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이미 모여든 동리사람들은 여러 종류의 사약을 먹여 놓은 뒤였고 어떤 사람은 무당을 불러야 한다고 제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간호원으로서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을 생각했습니다. 그때 육지로 곧 후송을 해야 했지만 앞뚝게도 그 전날부터 내리고 있던 폭풍주의보는 여전히 발효중이었으며 게다가 바로 사고가 난 그날은 안개조차 심하여 한치 앞 물결도 보이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감히 그 성난 바다를 뚫고 배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응급처치를 해야될 사람은 간호원 저 혼자 뿐이었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않된 상태에서의 위세척 ! 난감했습니다. 비상수단을 써야만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방앗간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유일한 튜브인 기름주입용 고무튜브를 한개 찾아왔고 가능한한 깨끗이 여러번 닦은 다음 식도에 조심조심 삽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량의 물을 여러번 번갈아 넣어서 뿔아내곤

했습니다. 처음엔 역한 세척내용물이 나오더니 그 횡수가 거듭되자 차츰 응액은 냄새없고 깨끗해져 갔습니다.

다행히 눈으로 확인하니 우선 어느만큼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주위를 정리토록 하고 환자를 방으로 옮겼습니다. 마음은 걱정으로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당시 제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 내고 시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미 몸안으로 퍼져있는 약물을 희석시키기 위하여 5% Dextrose 수액이 3000cc 준비되었고 천천히 혈관주사를 시작했습니다. 주사를 고정시키고 나서 저는 의식없는 환자결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느님, 살려만 주십시오. 환자를 돌보는 이 손은 보잘 것 없는 제손이나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힘을 이곳에 퍼시어 이 목숨을 건지게 해주십시오. 목숨만 건지게 해 주신다면 주님뜻으로 알고 죽도록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말입니다.

신에게 향하는 기도의 마음은 모두 다 승고하고 준엄하다고 믿습니다. 그중에서도 맹세의 기도는 경건하고도 두려운 것입니다. 저는 무의식중에 마음의 간절한 소망을 기도했고 이 환자만 살아난다면 무엇을 못하랴 하는 결심을 하느님 앞에 맹세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 순간부터 저에게 있어서 종교적 측면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조금씩 밝아졌던 것입니다. 밝아져가는 신앙을 향한 마음은 곧 바로 간호원의 참된 도리를 깨닫는 것과 통했습니다. 이론으로만 의위두는 머릿속에서만 댄도는 간호원의 길이 아니라 가슴으로 뜨거운 실장으로 진정 깨닫고 느끼는 그런 길의 의미였습니다. 봉사정신, 희생정신 자기자신을 멀찌감치 밀어두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 내어주는 일, 간호의 정신은 곧 종교의 정신과 잇닿아 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초조롭고 긴장감이 감도는 속에서 밤이 지나갔고 아침이 왔습니다. 전혀 피곤하다는 생각도 없었고 배가 고프다는 느낌조차 없었습니다.

학교에도 나가지 못한 채 다만 환자결을 지키고 있었는데 이때 또 다른 이상이 생겼습니다.

환자의 배가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무서울 정도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삼시간에 배는 터질 듯 커졌고 호흡이 곤란할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의식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호흡 곤란으로 환자는 새파랗게 질리기조차 했습니다. 아무래도 장내에 개스가 심하게 생기는 듯 했습니다.

너도 나도 알고 있는 온갖 사약을 먹여 놓았으니 아마도 그 때문에 개스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사람들은 여러가지 방법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아주머니는 뱃속에 개스가 생긴게 아니라 뱃살이 두기때문에 부은 것이라고 저를 힐책하며 사약을 끊으려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그러자 구경꾼으로만 서 있던 마을의 한 청년은 온몸의 신경이 두약때문에 잘못되었다며 지압을 하면 나올 수 있다고 나섰습니다.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약물중독에 지압이라니... 그 청년의 말이 그럴듯 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보자고 이구동성 찬성을 했습니다. 청년은 불쑥 나서더니 정말 무엇을 하려는지 팔을 걸고 그 아주머니의 배를 누르려 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그 청년을 끌어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압을 하는 동안 저 아주머니의 배가 점점 더 부어오르고 숨이 막혀 위험해지는 최악의 상태가 된다면 당신이 그 책임을 지겠어요?” 저는 차라리 울음이 터질듯 소리질렀습니다. 청년은 멀쩡하더니 아무말없이 물러섰습니다. 저는 그런 못지못할 방법들을 실행하도록 두고볼 수는 없었습니다.

처음에 식도에 넣어 위를 씻어내던 그 튜브를 이번에는 항문에 넣었습니다. 윤활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튜브에 식용기름을 바르고 조심조심 삽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딱딱한 튜브가 항문에 잘 들어가지 않아 애를 썼지만 얼마만큼 들어가자 세차게 가스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악취가 심했고 거것발처럼 배는 줄어들었습니다. 등에 식은 땀이 흘렀지만 겨우 안도의 깊은 숨을 쉴 수가 있었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께 서는 간절한 제 기도를 들어 주셨고 소망했던 대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날씨는 그 뒤로도 이틀동안이나 계속해 흉흉했고, 심은 거의 한주일 이상이나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수액은 겨우 이틀동안에 바닥이 났고 환자는 놀랍게도 의식이 되돌아 왔습니다. 허나 이번엔 위의 심한 작열감을 호소하며 통증을 못 견디어 했습니다. 저는 다시 난감해졌습니다. 생각끝에 온마을을 돌아다니며 겨우 가루분유 반통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완전히 입을 통해서는 금식의 상태였고 다만 분유는 조금씩 물에 풀어서 떠먹이게 했습니다.

우유가 상처난 위를 부드럽게 달래주고 손상된 위벽과 식도벽을 조금이나마 빨리 회복시켜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였습니다. 상태가 조금씩 호전 되자 환자를 가족에게 맡기고 사흘만에야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날의 허탈함이 갑자기 물려왔고 저는 방바닥에 넘어지듯 누워 깊은 잠에 빠져 들었습니다.

다시 잠에서 깨어 났을 때는 또 밤이 와 있었으니까 꼬박 하루를 잠잠던 것입니다. 왈각 걱정이 솟구쳐 급히 달려가보니 놀랍고 고맙게도 아주머니는 아픔이 가라앉고 아주 편안히 잠들어 계셨습니다. 그때의 벅찼던 기쁨! 저는 마냥 엉엉 울기만 했습니다. 마치 죽었다고 생각한 사람이 살아 돌아왔다면 아마 이만큼 기뻐하지 모릅니다. 무한히도 큰 환희에 가슴이 뚫뚫하고 터질듯도 했으니까요. 아픈데 그로부터 이틀이 더 지나자 아주머니는 대화도 나눌만치 좋아지시고 앉은 자리에서 조금씩 움직이실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위험한 극한 상황은 비켜갔다고 생각되었지만 그래도 제 마음은 영 개운치가 않았고 아주머니께 날씨가 좋아졌으니 육지 큰 병원에 한번 가 보시라고 권유했습니다. 처음엔 다 나왔는데 뭘! 하시면서 주저하셨지만 몇번인가 계속 권유하자 나중에는 순순히 육지행 뱃길에 오르시기를 응하셨습니다. 날씨는 언제 폭풍이 왔느냐는 듯 맑게 개었고 다시 연락선이 왔습니다.

동리 사람들의 따뜻한 배움을 받으시며 아주머니는 가족들에 의지하여 육지에 가셨고 4~5일 뒤에는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집에 돌아왔

습니다. 그때처럼 제가 섬에서 일한다는 자부심과 보람감이 컸던 경우는 아마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병원시설과 의료인의 손길이 아취워 발을 구르던 경우가 어디 한두번이었습니까? 모든 것이 부족했고 준비된 기구나 도구, 약품조차 희소한 상태에서 빈손으로 그네들을 돕겠다고 나선 것은 이미 참기 힘든 아픔이고 고통이었습니다.

어느 때는 벨스러운 장난끝에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꺾이운 꼬마들도 있곤 했습니다. 아픔으로 눈물을 흘리고 신음하는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부족이나 대어주는 정도이니 오직 안타까웠을 뿐입니다.

부모님들을 설득시켜 빠른 시간내에 육지의 병원에 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의인 것입니다. 마음이 늘 답답했었습니다. 더 이상의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생각으로 제 무능력이 미웠고 가슴을 칼로 파헤치듯 아파도 했습니다. 허나 어쩔수가 없었습니다. 실사 무엇이든 다 마련이 된다해도 응급처치, 그 이상은 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법률이 정하는 양호교사가 할 수 있는 한정된 범위의 활동, 그것이 의식 가운데 늘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족하고 아취운 속에서도 작은 기쁨도 있었습니다. 너무나 자주 꼬마들은 크게 상처를 내어오곤 했습니다. 꼭 봉합을 해야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허나 아무런 기구도 없었기에 그냥 살이 붙어주기만을 기대해야만 했습니다.

얼마동안은 마음의 근심으로만 지나쳤지만 너무나 깊고 큰 상처가 났을 때는 실상 정신이 없었고 무엇으론가 그상처를 아물려야 한다는 생각만이 커다랗게 떠 울랐습니다. 개구장이 꼬마철이의 이마에 생긴 커다란 상처가 지금도 제 눈에 생생히 보이는 것만 같아 가슴이 아픕니다. 느닷없이 터져나오는 울음소리에 놀라 뛰쳐나간 제 앞에 우물가의 광경! 선혈이 낭자했고 미끌어지면서 물에 부딪친 꼬마의 머리는 거의

일치선으로 크게 살이 벌어진 채였습니다. 정신 없이 꼬마를 안아다 방에 눕히고 출혈을 막기 위해 서둘렀습니다. 피가 일단 멈추자 꼼짝스러울 만큼 벌어진 이마의 상처를 꼭 봉합 해야만 했는데 병원은 커녕 의사도, 기구 하나도 준비되지 못한 현실임을 다시 알아야만 했습니다. 뒤편아은 아이의 어머니께 인천에라도 나가서 병원에 가야지 이 상처는 워낙 깊어서 그대로는 아물 것 같지 않다는 설명을 했지만 그 정도 상처에 무슨 육지까지 가느냐는 신통치 않은 대답이었습니다. 교통이 불편하니 일단 육지에 나가면 적어도 2~3일은 그곳에서 숙식을 해야 하는 실정이었고 소모될 경비 문제도 컸기 때문이었지요. 또한 매일 허덕이는 농사일을 팽개치고 꼬마 상처로 육지에 갔다 올 시간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곳에서 상처를 돌

봐야 하는구나 하고 생각을 굳혔습니다. 꼼꼼히 생각하다가

방법을 하나 기억해 냈습니다. 위급하면 전쟁터에서 해봤다면 어떤 분의 체험담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바느질 실을 잘라오고 가느다란 바늘을 찾아내어 소독액에 담겼습니다. 봉합사를 대신할 실은 얇은 거—즈에 여러겹 산 뒤 솔뚜껑 안쪽에 매달아 뚜껑을 그대로 덮은채 물을 끓였습니다. 증기에 의한 약식 소독을 한 것입니다. 마취? 그런 것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병원에서 봉합 그것과는 거리가 너무나 먼 방법이었지만 제가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동원하여 무균조작에 가깝도록 힘썼습니다. 손을 닦는 수 밖에 없었습니다. 수십번 손이 빨갛게 피뎠도록 솔로 비비고 닦아냈습니다. 또 상처를 흐르는 물에 닦아 흠과 먼지, 마른 피를 깨끗히 씻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는 상처의 봉합이 아닌 옷지못할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꼬마 철이녀석은 아픔에 못이겨 발버둥 치며 울어댔고 반대로 저는 천천히 그리고도 침착히 한바늘씩 한바늘씩 상처를 꿰매어 갔습니다.

옛말에 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가 없으면 대신 잇몸으로 산다”하는 말입니다.

상처를 다 싸매고 꼬마를 보냈지만 걱정은 태산 같았습니다. 과연 저 상처가 깨끗이 아물어질 것인가? 혹시 무서운 부작용의 결과가 오지는 않을까? 밤새도록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론 책임없는 일을 했다는 근심이 머리에 서 떠나지 않았고 이럴 때 보진지소라도 가까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이 많았습니다.

의사에게 보내어 보여야. 한다는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그곳은 바다로 사면이 딱힌 낙도였습니다. 어떻게든 해볼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경우 상처가 악화되고 상태가 위급에까지 이른다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바로 양호교사에게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안

바느질 실을 잘라오고 가느다란 바늘을 찾아내어……

드디어 상처의 봉합이 아닌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타잡고 딱했습니다. 결과를 두려워하면서도 상처를 보고는 결코 방관할 수는 없는 위치! 바로 낙도의 양호교사였습니다.

걱정이 많았으나 결과는 의외로 좋았습니다. 다음날 그녀석은 머리에 붕대를 댄채 삶은 감자를 한바구니 들고 내게 와서는 천처럼 떠들며 운동장을 달려 돌아갔습니다. 소독하기 위해 붕대를 떼었을 때도 상처는 썩 깨끗했습니다. 외한한 일이라고 고개를 가웃했지만 그럴만도 했습니다. 웬만한 상처는 특별히 치료도 못받은 채 자연히 치유되곤 했으니 건강한 꼬마들의 피부는 치유속도가 의외로 빨랐던 것입니다. 어른들의 약에 대한 남용, 오용과는 너무도 대조적인 현상으로 느껴졌습니다.

자연과 벗하며 단련된 튼튼한 덕분에 철이의 이마상처는 매일 하루 두번씩 상처소독만을 해주었지만 10여일 뒤에는 깨끗히 아물어 실을 풀어내게 되었습니다. 흉터는 크게 나타렸으나 썩 잘 아물어 기쁘기만 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는 정말 오랫동안 보는 밝고

기가 올라 있었읍니다. 성의가 없다고 마음속으로 원망했던 철이엄마가 고맙다는 마음의 뜻으로 씨암탉을 가져왔다는 것이었읍니다. 가슴이 뜨거웠읍니다. 귀하게 여기는 씨암탉을 서슴없이 잡아온 그 순박한 마음, 젓가락을 들고 한찬을 애썼읍니다.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애썼읍니다. 작지만 따뜻한 정! 그런 것이 주는 묘한 분위기, 체헛치 않은 사람에게는 낯선 말이겠지요.

이일 이후도 몇번인가 엉터리 봉합을 피할 수 없던 몇번의 일이 있었읍니다. 그때마다 잘 아물었고, 별다른 큰 탈은 없었지만 마음은 언제나 편안치 못했읍니다. 돈만 준비 된다면 완벽하게는 못되더라도 몇개 봉합을 시도할 수 있는 기구를 구할텐데……하는 간절한 바람이 늘 제 마음 한구석에서 떠나지 않았읍니다. 세번이나 이런 웃을 수 없는 상처 봉합을 한 뒤 저는 꼭 기구를 구해야만 하겠다고 마음 먹었읍니다. 비록 얼마되지 않는 봉급이지만 사비를 털어서라도 이번에 육지에 가면 꼭 구해오리라 생각하고 있던 저는 기쁜 말씀을 들었읍니다.

어느날 학교를 살림해 나가시는 김용대 교장 선생님께서는 과감히 결정을 내려 주셨던 것입니다. 예산이 많이 있는 육지의 학교에서라면 별일이 아니겠지만 자그마한 섬 학교에서의 수만 원이라는 예산없는 지출은 큰 용단임을 저는 잘 알고 있었읍니다. 정말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었지요. 남들이 봤더라면 웃을 정도의 하찮은 몇개 기구였지만 그걸 사가지고 섬에 돌아가는 제 마음은 무엇에 견줄 바 없이 들떴고 호뭇했읍니다. 이제는 웬만큼 커다란 상처가 생겨도 빨리 나을 수 있을 것이고 흉터도 많이 안생가고 아물 것이니 기뻐했읍니다. 진작 이런 기구만 마련되었다라면 돌이도 철이도 흉터가 적었으리라, 생각은 길었지만 정식 기구를 구했으니 기쁨은 어느 것에도 비교키 힘들만치 컸읍니다.

기구를 구입하고 여러번 봉합을 해냈읍니다. 조금씩 익숙해졌고 좀더 예쁘게 흉이 적게 생기도록 정성스럽게 신경을 써가며 케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생겼읍니다.

낙도의 양호선생님! 지나고 난 생활이기에 돌이켜 생각하면 역시 수월치 않은 직책이었고 어려운 여건이었음을 시인하게 됩니다. 허나 피해 지나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었읍니다. 도저히 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일들만은 아니었읍니다.

전혀 아무런 상식조차 없이 전문직의 흉내를 내가면서 겁없이 병든 사람을 좌우하려는 지역 주민들을 그대로 방치해 둘 수는 없었기 때문에 혼자만의 힘으로도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었고 그로인해 상상도 못할 만큼 건강 증진이 될 수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읍니다. 이런 생각들이 지치지 않는 용기의 끝없는 힘이 되어 주었읍니다.

누구나 가장 필요한 사람이 되고자 원할 것입니다. 제가 바로 그런 사람으로서 있다고 생각하니 기쁘기만 했고 행복하기만 했읍니다.

가끔씩 설치는 밤잠이 안타까웠고 추운 눈보라 속의 가정방문으로 거꾸로 지독한 잠기를 얻어 앓을 때도 여러번 있었지만 내가 아니던 그들을 돌볼이가 없다는 생각이 나자신을 한없이 들뜨고 힘나게 했던 것입니다. 기꺼이 걸고 뛰었지만 불만도 컸읍니다. 이런 경우를 비단 저만이 겪었던 일은 아닐 것 입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어느 산골, 어느 외딴 섬, 외진 곳, 많은 이들을 돌보며 제가 그랬듯이 안타까움에 발 구르고 있을지도 모르는 양호교사 들을 위해서 이야기할까 합니다. “황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한다”는 옛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짧은 폐기와 넘치는 의욕을 가진 양호교사는 비빌 언덕이 없었읍니다. 두손에는 아무 것도 없이 줄 수 있는 도움은 너무나 제한 될 것입니다. 비빌 언덕만 마련됐던들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었읍니다. 팔이 부러지면 부록만 주었지만 피봉대도 해 줄 수 있었읍니다. 대소변을 자기 스스로 못보아 고생하던 분들, 그들에게도 간단한 기구 몇가지만 있었으면 편안케 해줄 수도 있었읍니다. 허지만 무엇이 있었읍니까? 내가 가진 적은 지식

과 기술이나마 널리 활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은 힘조차 못될 때 그 답답하고 슬픈 마음! 아무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낙도에서 벽지에서 많은 양호교사들이 이런 깊은 아픔과 회한을 맛보며 뛰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픔을 덜어주고 환자를 낫게하기 위해 베풀 수 있는 간호는 너무나 좁게 정해져 있습니다. 의사가 할 수 있는 처방을 낼 수도 없을 것이고 약사가 할 수 있는 조제도 할 수 없습니다. 허나 조건이 좋지 못한 의료의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낙도나 벽지에서는 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 일까지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손에 약도 쥐어 주어야 합니다. 위험한 지경을 넘길 수 있도록 응급처치할 수 있는 기구까지도 줄 수만 있다면 어렵지않고 수월하게 그 아픔이나 상처를 무마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일을 할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만 준다면 그 팽팽한 손들은 많은 일을 해낼 것입니다.

치료만을 위한
대민 사업, 학교
보건 관리를
떠나 예방을 위

한, 예방을 통한 참된 지역사회 보건 사업을 해낼수 있을 것입니다. 종없이 전쟁에 나간 군인! 한번 상상해 봅시다. 무기를 갖지 않은 처지의 군인이 어떻게 살아 남을 것이며 어떻게 훌륭한 전공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와 똑같은 상황이 아닐지요.

한달에 한번씩 육지로 가는 배를 타던 마음은 늘 설렜었습니다. 험란하고 북적대는 도시의 거리가 그림프고 옷차림의 화사하고 고운 빛깔들이 뱃머리에 어른대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아직은 지끄려운 것도 험란한 것도 싫지는 않은 젊은이였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허나 사실은 어떻했는지요. 막상 인파에 휩싸일 때, 변화스런 거리 진열장 앞을 지나칠 때, 저는 여러번씩 자신에게 놀랐습니다. 고운 빛깔 옷이나 유행된다는 악세사리보다 우선 눈에 뜨이는 것이 하나같이 의료 기구상, 약국 병원안

의 많은 의료 인력들이었습니다. 절실히 그것들이 부럽고 탐났습니다. 그만큼 의료 기구, 약 등이 절실히 요구되었고, 낙도에 갈 수 있는 의료 인력이 필요하였습니다.

늘 감기 잘 걸리는 속이는 저기 어린이 영양제가 좋을 틈데.....소화가 안되고 밥을 잘 안먹고 얼굴이 핼썽한 호야를 소아과 전문의에게 보이면 어떨까?.....생각은 늘 꼬리를 잇고 섬으로 달려가 한참씩이나 저를 병원앞에, 약방앞에 멈추어 서게 했습니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동안에도 줄곧 아이들이 눈앞에 보였고 마치 영화필름이 주욱 이어지듯 머릿속엔 보잘것 없는 허름한 양호실, 거의 비어있는 약장동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아픈 녀석은 없을까? 육지에 이렇게 내가 서있는 동안에도 혹시 무릎이 깨져 울고 다니는 녀석은 없을까 부지런히 시간을 당겨 일을 본뒤 귀로에 올라야만 마음이 편하고 통통 배머리에 섬 승봉의 잔잔한 모습이 어른대면

쓸쓸한 그 아이들을 위해 망설임 없이 그 손길이 되어 줄 마음이 예쁜 불을 켜는 것 말입니다.

그때부터 아이들의 까르르 웃는 웃음소리가 이미 제 귓속엔 가득 했습니다. 그때부터 다시 기쁜 생활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런 정스러움이 없다면 머물기 어려웠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랑해 주어야만 합니다. 다만 끝모를 샘플의 솟아남처럼 처치지 말고 사랑으로 돌보아야 합니다. 따뜻하게 부드럽게 손잡고 이끌어 나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다음 한결같지 못한 것인가 봅니다. 제가 섬 승봉을 떠난지 벌써 여러달이 다였습니다만, 이제는 그 아이들을, 그 주민들을 돌볼 사람이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차례 양호교사를 발령내었으나 하나같이 그 지적된 곳이 외로운 낙도라는 것에 놀라고 부임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문제는 임지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무작정 섬을 살기 힘들고 살 수 없는 곳이라고 단정해 버리는 것 같으며 사

실 그 낙도라는 곳에서 근무하기란 너무나도 어려운 조건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기만한 일입니다.

나는 이자리에서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 어디서든 일해야 합니다.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면 어떤 것이든 도와야 합니다. 때로는 부끄러운 생각이나 배타적인 감정으로 도움조차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스스로 그것을 찾아내고 다독겨야 주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참 간호원의 나아갈 길일 것입니다.

망서리는 간호원.....두려워하고 꺼리는 간호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섬사람들의 없어서는 안될 존재가 되기를 거부하는 것인지... 이제는 그곳을 떠난 일이 후회되기조차 합니다. 할 수 있는 한 오랫동안 그곳에 남아 있었더라면..... 하는 생각이 괴롭도록 후회스럽기만 합니다. 허나 이제는 마음 뿐입니다. 정든 내 고향 같은 아이들이 무척이나 보고 싶지만 이제는 쉽게 가볼 수도 없으니까요. 2년동안 제대로 자신을 돌보지 않고 지낸 결과로 만성위장병이 생겼습니다. 어느 때는 밥을 건너뛰고 어느 때는 식은 밥을 먹고 지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타는 듯한 작열감이 오고 무언가 위에 이상이 있는 듯해서 건강을 돌보기 위해 잠시 육지 집에 와서 몸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임지 변경·발령을 받기 20여일 전이었습니다. 멋모르고 섬에 남아 있는 꼬마들 걱정을 하고 지내는 제게 들연 발령이 났다는 교육청의 연락이 왔습니다. 낙도에서 오랫동안 애를 썼다면 이제 좀 편히 육지에서 근무 열심히 해보라는 말씀의 전화를 받았을 때 저는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듯 멍했습니다. 임지 변경이라니... 아니 그럴 섬의 아이들, 그 사람들은 누가 돌본다는 말인가, 그런 착잡한 마음을 안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섬에 들어갔습니다.

정리하는 3일 동안의 시간, 너무 짧았습니다. 짐을 정리하는 내방을 아이들은 매일, 매시간, 빼지어 찾아와서는 울음바다를 만들었습니다. "가지마세요 선생님, 가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 나빠요." 저는 어떻게 해야할지 허둥거렸음

니다. 배가 섬에서 떨어지는 순간 저는 차라리 물에 뛰어 들고 싶었습니다. 선착장이 보이지 않도록 새카맣게 배웅나온 사람들, 그들이 손 흔드는 것 그것보다 땅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몇몇 꼬마들이 제 마음을 아프게 두드렸기 때문입니다. 우울한 생각으로 마음이 스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로 이 순간에도 어느 산골에서나 어느 섬 한구석에서 아픔과 고통스러움으로 고생하는 아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곁에 아무도 없을 때 추위나 배고픔은 더욱 심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아무런 방법이 없다 하더라도 뜨겁게 꼭 손이라도 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것으로 우선 마음이 편해지고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힘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꿈인 저 아이들, 모두에게 진정 필요한 존재가 되어 줍시다. 섬을 떠난 육지의 자리에서 큰 어려움 모르고 아이들과 지내고 있지만 늘 마음 한구석 허전함을 느끼게 됩니다.

비록 없는 것이 더 많았고 어려움이 끝없이 이어지던 낙도였지만 그곳에서는 적어도, 내가 해야만 할 일들이 태산처럼 많이 쌓여 있었고 일속에서 어지럽도록 바쁘다는 것, 그런것의 즐거움을 느끼고 지냈기 때문입니다.

좋은 약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고 손쉽게 응급 처치를 할 수 있는 기구들이 정리된 넓직한 양호실을 이제는 마음껏 활용해도 좋은 기쁜 처지에 닿아 있으나 마음은 그리 크게 기쁘지 않습니다.

이 안타까움은 바로 가난하고 아픈 아이들로 향하는 마음입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여건으로 탈바꿈 되는 때가 곧 오기를 비는 마음뿐입니다.

어서 착하고 고운 마음 사당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가실 좋은 양호선생님이 계시기를 빌 뿐입니다. 기다리고 갈망하는 사람이 있는 곳 외면하지 않고 어서 가서 그들의 바램속에 살아 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두서 없고 정리 되지 못한 말이 이어진 것 같습니다. <30페이지로>

—오직 신념과 용기를 가지고 일했고 저를 지금까지 필요로 했던 지역사회 농촌주민과 호흡을 함께 하며—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서게 된 것도 저 개인이 잘 나서도

그러나 제가 하는 일이 보람될 것이고 몇몇한 것이기에 언젠가는 그이가 반드시 저의 사업을 이해하고 협조해 줄 날이 오리라 믿고 지혜롭게 대처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이의 노여움은 쉽게 풀이지지 않았습니다. “하필이면 밤까지 일을 하느냐? 아무리 해도 하대를 받는 임시직인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정규직이 되며, 밤까지 일한다고 특근수당이 있느냐, 과잉충성은 하지 팔다”고 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전 아무리 늦어도 트럭이나 다른 차편을 이용하여 늦게라도 집에 돌아오곤 했습니다만, 그 때도 그이는 탁무가내였어요. “어느 날인지 모르나 염치는 있군. 밤늦게라도 보내주니 말이야, 그 놈이 가라더냐?” 물론 그이의 말씀은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줄 알면서도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한 제 심정은 무엇으로 다 말할 수가 있었습니까?

직장에 충실하려니 집안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 하게 되는 간호원의 어려움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진퇴양난에 처했을 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때로는 직업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만으로 저를 주저앉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니고 다른 분보다 더 많은 일을 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신념과 용기를 가지고 일했고 저를 지금까지 필요로 했던 지역사회 농촌주민과 호흡을 함께하려고 노력했으며, 직책은 가족계획 지도원이나 다목적 보건봉사자로서 힘을 다했기 때문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일터로 돌아가 계속 이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 물론 지난 날에 겪었던 어려움이나 괴로움이 다시 되살아나는 경우가 있기는 하겠지요. 그러나 저를 필요로 하는 농촌의 선량하고 어진 지역주민이 있는 한 앞으로 계속 굳건히 의료인의 대열에 성실히 참여하여 새로운 학문과 기술을 익혀 보다 나은 자기개발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계속 어떠한 어려운 난관이 닥쳐오더라도 이를 굳건히 극복하고 직장이나 가정, 그리고 내 이웃 등의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 남은 여생동안 저의 모든 정열을 쏟아 헌신할 것을 이 자리에서 굳게 다짐하는 바입니다.

지루한 말씀 끝까지 경청해 주실 여러분에게 앞으로 더욱 격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만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 [2]



<20페이지에서>

마지막 한가지 소망이 있다면 제 이야기로 인하여 여러분 가슴 하나하나마다 예쁘고 작은 불 하나씩 켜게 되었으면 합니다. 출고 아픈 아이들 어둡고 외로운 산속에서, 설 한가운데서 따스

한 손길을 그리워하는 들보는 이 없어 쓸쓸한 그 아이들을 위해 망설임없이 그 손길이 되어 줄 마음의 예쁜 불을 켜는 것 말입니다. [3]